

# 8 유월절과 출애굽

## Chapter

출 12:1~42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은혜찬송 192장 (오 주님께서)

### 오늘 배울



### 말씀

1. 유월절과 출애굽의 관계를 압니다.
2.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압니다.

### 마음 열기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 보세요.

먼저 살아 있는 어린양이 사람들에게 의해 피를 흘리며 희생당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양을 잡고 구워 먹는 장면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양을 잡는 한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보고 그 느낌과 감정들을 기록해 봅시다.



## 말씀을 이해하기

### 공과말씀정리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 주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 온갖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곧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그 어린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두루 돌아다니며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백삼십 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은 죄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 12:13)

Now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be 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Ex 12:13)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고전 5:7)

(벧전 1:18~19)

(요 6:53~57)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기 4일 전에 예비됨 (출 12:3)	창세 전부터 대속을 위해 죽음이 예비됨 (벧전 1:20)
아무런 흠 없는 어린양 (출 12:5)	(고후 5:21)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죽임 당함 (출 12:6)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고전 15:3)
그 뼈가 전혀 꺾이지 않음 (출 12:46)	죽으신 후에도 뼈가 꺾이지 않으심 (요 19:36)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 심판이 지나가게 함 (출 12:7)	(벧전 2:24)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뿐 아니라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피는 그들을 죽음에서 지켜 주었고 양고기는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은 이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진정한 만족은



짜잔~!  
최신 스마트폰!!



이게 꿈이야  
생시아!!

몇 개월 후



이건 고장도  
안나냐!!

**탁! 탁!**

핸드폰을 처음 샀을땐 너무 좋아서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떨어뜨리거나 여기저기 긁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봅니다.

어떠세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신의 욕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건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5:10)**

## 내 너를 위하여!

어느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마침 흑인 모자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아무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어린아이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사겠다’며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예상은 어머니만 팔고자 두 모자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겠으니 내 어린 아들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새 주인에게 호소했지만 새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생이별을 하게 된 두 모자는 서로를 꼭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노예상이 두 모자를 떼어 놓으려 했지만 둘은 더욱 꼭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큰 칼을 들어 어린아이를 내리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교사는 급히 자신의 손으로 그 칼을 막아 냈습니다. 선교사의 손과 팔에는 큰 상처가 나게 되었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선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상에게 후한 값을 지불하고 두 모자를 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풀어주며 ‘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모자는 ‘이곳에서는 언제 또다시 잡혀 노예가 될지 모르니 선교사님을 따라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선교사님께 은혜를 갚게 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함께 아프리카에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자유를 준 선교사를 위해서 흑인 모자는 선교사의 손발이 되어 아프리카의 선교사역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역이 힘들 때는 화도 내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는 아무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대신하여 칼에 맞아 생긴 흉터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